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소음이나 다름없다

“법정 스님은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소음이나 다름없다’고 그러셨어요. 누에가 거친 뽕잎을 먹고 비단실을 뽑아내듯이, 스님은 대장경이라는 커다란 숲에서 해탈한 잎들을 모아 유려하고 감성 어린 우리말로 불교를 풀어내셨어요. 이웃 종교와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요. 그 종교 정서로 말씀을 나누셨지요. 천주교 신자들은 법정 스님 말씀을 눈 감고 들으면 마치 수사님 말씀 같다고 했어요. 스님은 봉은사 다래현과 불일암에 사할 때, 서가 한편에 성모상을 모시고 촛불 공양을 올리곤 하셨어요.”

인터뷰 요청에 조심스럽다며 여러 차례 순사례를 치다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이 아닌 자연인 자격이라면 하겠다며 취재에 응한 속가인연으로 법정 스님 조카 현장 스님(56). 역사를 훑는 안목과 유머 감각이 남다른 말을 듣는다.

전남상대에 다니던 법정 스님은 한 해 남짓 목포에 있는 절 정혜원 총무를 보면서 학교를 다녔다. 때마침 정혜원에서 산림법회가 열렸는데, 법석에서 설법을 한 효봉 스님과 인연을 맺어 출가한다. 현장 스님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혜원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기보다는 출가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제가 출가를 한다고 하니 어머니가 봉은사 다래현으로 법정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은 ‘우리 집 안에서 중이 또 나오겠구나’ 하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 출가소식을 듣고는 당시 출가 때 심정을 떠올렸다면 ‘먼저 학문을 익혀 자신과 사회에 대해 눈여겨 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 출가를 하겠다’면 좋겠다. 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자기 존재와 사회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면 거꾸로 종교 자체가 부정되는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때 스님 뜻에 따라 공부를 더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그 편지를 늘 되풀이해 읽으면서 스스로 경책하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다래현으로 법정 스님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송광사 뒤에 암자를 지으려니까 송광사로 내려가라고 하면서, 구산 스님께 소개장을 써주셨어요. 스님은 출가하신 뒤로는 세속 인연을 애써 밀쳐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반기지 않으셨기에 저 또한 세속 인연을 애써 드러내려고 들지 않았습디다.”

현장 스님이 입산한 75년 4월에 불일암을 짓기 시작했다. 불일암 자리에 있던 암자 이름은 자정암 靜庵이었다. 법정 스님은 서울을 떠나 쓰시 암자를 전국을 다니며 보시다가 자정암에 올라 때마침 꽃밭 울이 벵그는 매화를 보고는 “이곳이 내가 살만한 곳이구나”고 생각하셨단다. “자정암을 헐어 나온 재목과 기와로 부엌 채를 지었어요. 불일암 건물은 지은 기와나 목재는 모두 인부들이 등짐을 저 날랐어요. 그때 불일암에 술을 끓여놓고 밥을 하고 찬을 해서 일꾼들을 먹였으면 될 텐데, 어떤 일인지 현장에서 해서 날랐어요. 제가 밥과 찬을 들고 하루 두 차례씩



오르내리며 백일 남짓 뒷바라지를 했어요. 행자 때 지은 북으로 평생을 산다고 스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 덕분에 이제껏 큰 탈 없이 살고 있나 봅니다. 암자 이름은 한 번 크게 된다는 뜻을 가진 일휴암(一休庵)과 불일암(佛日庵), 돌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불일암으로 지었어요.” 그 뒤로 얼마 동안 현장 스님은

세속 학문을 익혀 자신과 사회에
눈뜬이 있는 다음에 출가를 해야

불일암에 들어가 법정 스님을 모셨다. 법정 스님은 그곳에서 17년을 살았다.

“제가 출가하는 봄에 불일암을 짓기 시작해서 계를 받는 날 낙성식을 했어요. 불일암과 제 출가 나이가 똑같아요. 그때 촛대처럼 가는 후박나무 묘목을 심었어요. 불일암에 갈 때마다 후박나무를 만지며 술걸도 느껴보는데, 그 때만하면 나무가 아름드리로 자라서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요. 나무는 그렇게

키는데 저는 별로 크지 못해서 그 나무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후박나무는 그동안 불일에 오간 사람들, 그곳에 살던 사람들, 쫓아 피고 지던 소식, 헌식대(獻食臺)를 스쳐간 동물들을 비롯한 불일 숲길을 낚날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테죠.” 현장 스님에게 불일암은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어머니 품 같은 곳이다. 법정 스님 사상이 깃든 불일암과 현장 스님 역사는 나란히 간다.

“지금은 계단이 한 쪽으로 나 있지만 처음엔 계단이 정면으로 나있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똑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맞닥뜨리는 게 거북해서 계단을 옮겼어요. 사위실도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 목욕을 한 분이 천주교 수사였어요. 그래서 천주교 목욕탕이라고 불렀지요. 그때도 스님은 다른 종교와 교류가 활발하셨어요. 불교라는 틀, 수행자라는 상상이 없이 사셨잖아요. 불자들 못지않게 스님 책을 읽고 감동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디다. 스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들이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법

정 스님은 그이들을 천주 보살이라 부르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이들은 스스로를 천불교 신자로 부르곤 했다.

“스님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장익 주교님 도움으로 베네딕도 성인 수행처인 수비아코를 참배하며 성

꽃말을 이 벵그는 매화를 보고는
“이곳이 내가 살만한 곳이구나.”

베네딕도 수도규칙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이 존경하던 프란체스코 성인이 계셨던 아씨시를 둘러보면서 인도 불교성지를 참배할 때 못지않게, 아주 크나큰 성스러움과 성인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나라라고 고백하셨을 만큼 벽이 없었어요.” 그런 까닭일까. 법정 스님을 천불교 교주쯤 된다고 농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오더라

도 그 사람들에게 알맞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하셨어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형사들 맞이 따라 붙어 늘 감시를 했습니다. 불일암 건너편이 감로암 뒷산이거든요. 거기서 망원경으로 불일암에 어떤 사람이 오가는지 동정을 살폈어요. 그리고 스님에게 오는 편지도 모두 검열했어요. 계속 불쾌하게 여기시더니만 한 번은 광주 나가서 당신한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부쳤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김일성을 거꾸로 해서 김성일이라고 써서. 그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김일광을 보아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는 스님이 고즈넉한 산사 암자에서 조용히 지내셨으리라 여기지만, 어수선한 시국은 스님을 고이 내버려두지 않았다.

“사람들은 스님이 당시 글만 많이 쓰신 줄 알지만, 금세기 불교관련 문헌들 가운데 스님 손을 거치지 않은 문헌이 거의 없습디다. 먼저 불교사전, 유훈 스님을 도와서 불교사전을 만드셨잖아요. <불교사전>을 펴내면서 불교용어 개념정리가 확실해졌어요. 그 다음에 동국역경원에서 역경 일을 하실 때 팔만대장

건강뱅크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KPA, KETI, EMI, LSC, G, BIC, R,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기 개인용온열복대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NIQ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품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게 냉하거나 손 발이 차신다 *오심, 구역, 구토, 설사,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행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유통업체 (주함지극건강매트, 오심진조각, 오주베개등 지매품다양)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롬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공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롬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효승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용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석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롬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롬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롬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경에서 에센스를 뽑아서 (불교성전)을 책임편찬하고, 서문을 스님이 쓰셨어요. 사람들이 그 일을 법정 스님이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백련암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성철 스님 법어집 (선문정로)라던가 (본지풍광)을 모두 운문하고 교정을 해 드렸어요. 광덕 스님 같은 분도 (법보단경)을 낼 때 스님께 봐달라고 당신 상좌 지오 스님을 보내셨대요. 구산 스님은 아예 문집이나 책을 펴낼 때마다 법정 스님에게 교정 봐 달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종림학교에서 나오는 교본들이 있습니다. 제가 불일암에 살 때인데 권기정 교수가 직접 원고를 가지고 불일암을 찾아왔어요. 그 불교 교본을 모두 스님이 운문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스님 저술 뿐 아니라, 웬만한 불교 문헌들이 스님 손길을 거쳐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현장 스님은 송광사를 떠나 해인사 강원으로 공부하러 가면서 법정 스님과 거리를 두게 된다. 해인사에서 다섯 해를 살면서 불교학회를 이끌며 학생들과 함께 탁마했다. 서른 해 가까이 전국 불자들을 받고 있는 불교잡지 <해인>지 출발은 '학생회보'였다.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포교부를 맡아 불교학회를 이끌면서 학생회보 <해인>지를 펴냈어요. 백

**한 겨울에 피는 매화를
'석가모니 눈'이라 한다**

련암 큰 스님 법문과 해인사 대응전 벽화 이야기를 담아서."

지묵 스님은 그때를 이렇게 돌아본다. "(해인)지 창간 당시, 현장 스님이 거처로 뛰어들면서 '이번에는 <해인>지가 칼라로 나와요. 경비는 한 80만 원쯤 들고요' 라고 한다. '아니 10만원 남짓한 사중 보조로 학회회를 이끌어가는 형편인데 80만원이라니!'기가 막혀 하는데, 현장 스님은 여유만만하게 '다수가 있지요. 장경각에서 한 부에 100원씩 보급하면 돼요. 참매객들이 좋아하고 할 것이니 두고 보시오' 큰 소리로 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해인>지는 날개 돋친 듯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누가 이렇게 잘 내냐?' 백련암에 원고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성철 스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칭찬해주셨다. 큰스님 법문이 한글로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는 길이 <해인>지를 통해서 열렸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다." 글은 말보다 전파도 빠르고 힘이 셸다. <해인>지는 불교 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뒤에 현장 스님은 서울로 올라가 '불일출판사'를 만들어 불교서적들을 찍어냈다. 책 한 권이 작은 우주다.

"미구, 비구니 스님 가운데 법정 스님 영향을 받아 출가하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사람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거죠. 더욱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가는 스님 모습이 사람들에게 '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숙제를 던져주셨어요. 스님이 입적하신 뒤, 몇몇 스님들 입적 때 '우리도 꽃받지 말고 부조금 받지 마라.'며 스님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좀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죠." 소리 없는 소리, 우레 같은 침묵이었다.

달맞이꽃이 있듯이 봄맞이꽃이 있는데 가장 봄을 먼저 맞는 꽃이 매화다. 한 겨울 매화를 보고 머지않



인터뷰 요청을 수차례 손사래쳤던 현장 스님은 자연인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응했다.

아 모든 꽃들이 피어남을 알 수 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이 만 중생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예고편이다. 그래서 한 겨울에 피는 매화를 '석가모니 눈'이라 한다. "법정 스님 삶도 한 겨울 매화처럼, 중생 마음에 깃든 탐욕과 무지라는 번뇌 짐을 녹이는 약이었어요."

"한마음 뿌리로 돌아가 이웃을 이롭게 한다. 배품, 회향' 한다는 말씀을 원효대사는 '귀일심원歸一心源 요의중생鏡益衆生' 여덟 자로 표현했거든요. 그것을 스님은 여섯 자로 줄여서 '맑고 향기롭게'라고 정리해 내셨지요. 본디 우리 성품 안에 자리한 '청정과 자비'라는 두 날개 가운데, 청정심을 '맑고', 자비심을 '향기롭게'으로 나타내셨어요." 법정 스님은 '맑음'은 저마다 청정을 나타내고, '향기롭게'은 그 청정이 사회로 여울지는 메아리라 했다.

거듭 인터뷰를 사양한 이답지 않게 스님을 향한 사곡(思曲)은 멈출 줄 모른다. "스님은 나이나 종교를 떠나 다양한 계층과 끈끈한 동지애를 나누며 깊이 교류하셨어요. 특히 민주화운동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셨지요. 강원릉 목사님은 스님이 당신보다 한참 어리지만,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영위원을 모셔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한석헌 선생님과 스님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모셔서 운영주체로서 함께 하셨고요."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을 선 수행자이자 명상가, 경전 번역가, 문필가, 민주운동가, 불교개혁가, 자연주의자이며 생태철학자, 절대미감을 지닌 미학자, 차(tea)를 사랑한 다인, 종교교류 모범을 보인 어른이라고 말씀한다. 스님 사상을 놓치지 않고 이처럼 날날이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현장 스님은 절이 산 속에 호젓하게 있는 모습은 그대로 좋지만, 한편으로 절이 세상과 함께 뒹굴면서 아파하고 울고 웃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돌보기, 새터민에게 터전 만들어주기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과 늘 함께 하고, 법정 스님 못지않게 다른 종교인들과 교류가 활발하다. 그리고 대원사에 '티벳박물관'을 세우고 중국에서 지정보살로 추앙받는 김교각 스님을 기념하는 '김지장기념관'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법정 스님 선목전을 열고 선목집을 펴내 역사를 짚어 정신을 잇는 일에 열중한 현장파다.



글=법정 스님 사취를 더듬는 변태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은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지쳤다

여름 휴가철이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휴가 계획이 어찌 어찌 하다고도 하고, 아니면 휴가 다녀왔느냐는 말이 일상 쓰는 인사말이 되었다. 무슨 일을 그리 많이 하기에 휴식을 취하려 저리 많이 해변에 모일까. 저 군상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과는 동떨어진 세상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휴식 없이 정진만 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피로와 정신의 피로를 감당할 길이 없을 것이다. 휴식 없이는 성과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생 앉아서 쓰고 읽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앉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어렵다. 고시공부를 하는 학생의 경우 첫째 관문이 앉는 것이라고 한다. 육신을 조복 받는 앉는 일에 실패하면 지구력 있게 책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리되면 그의 청운의 꿈도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선에서는 앉는다는 말이 많이 쓰고 있다. 좌선, 좌선법, 좌구가 그렇다. 앉을 좌(坐)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좌도(坐處)라고 하면 영 다른 뜻이 된다. <안자춘추>에 나오는 고사이다. 안영(晏嬰)은 제나라의 명 제상이요, 뛰어난 외교관이었다. 초나라 임금이 안영을 초대하여 그의 지혜와 기상을 꺾어 놓고자 했다. 신하들과 모의를 마친 후 초대하여 주안상을 질펀하게 차려놓고 연회를 베풀었다. 그 때 한 사람을 격박하여 임금 앞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임금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연유를 물었다. 이 자가 제나라 사람인데 우리 초나라에 와 죄를 지었다고 병사가 고했다. 무슨 죄냐고 임금은 물었다. 도둑질한 죄[坐盜]라고 대답했다.

마주 앉은 안영에게 제나라 사람은 자고로 도둑질을 잘하니까라고 물었다. 그 때 안영은 조금도 비굴해 하지 않고 대답을 했다. "굴을 회수(洩水) 북쪽에 심으면 맹자가 되고 남쪽에 심으면 굴이 열리는데 이는 다름 아닌 풍토의 문제다. 허나 저 도둑은 우리 제나라에 있을 때는 양민이었었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하였으니 초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런지요" 여기서 초나라 임금은 배기를 들고 말았다.

한 시대의 아픔이기도 했던 연좌제(連坐制)가 서술이 퍼져 적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당사자와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범죄자의 친척이나 인척까지 연대적으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소산일 뿐이다. 1980년대 이후 사실상 폐지되었다. 연좌(連坐)란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특정 범위의 몇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되는 일을 말한다. 좌도나 연좌의 좌(坐)는 모두 죄를 짓는다는 의미를 갖는 말이다.

운문 스님의 제자 가운데 향림종원(香林澄遠, 908-987) 선사자 있다. <백암록> 제17권에 선사

의 좌구성로(坐久成勞)가 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향림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초조달마는 먼 인도에서 일부러 중국까지 와서 설법도 하지 않고 소림산에 들어 바쳐 9년 동안이나 벽과 마주 앉아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는 무엇하러 중국에 왔습니까. 그러자 향림 선사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그만 지쳤구나"라고 대답했다.

각 종파의 전등자(傳燈者)는 모두 조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선종에서는 대개의 경우 보리달마를 가리켜 조사라고 한다. 보리달마가 면벽 9년의 침묵 생활을 보냈다는 고사에서 좌구성로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은 너무 오랫동안 좌선하여 피곤하다는 의미이었으나 이 때 피곤하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꽤 건강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달마가 심신의 피로가 감내하기 어려웠다면 선종사에서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건강한 피로감이 있다. 이럴 경우 엔돌핀이 축적되어 인류문명사에 이바지할 만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일을 마치고 난 후의 피

**휴식 없이 성과를 얻기란 어려운 일
쾌락 좇으면 후회와 나약함만 남는다
침묵으로 혼란스러운 정신 가다듬어야**

로는 누구에게나 엄습하기 마련이다. 일이 성취되었을 때의 피로는 금세 소멸되고 만다. 성취감이 피로를 상쇄시켰기 때문이다.

라틴어 medicus는 '치료하다' 또는 '돌보다'는 말이다. 여기서 meditation과 medication이란 말이 나왔다. 전자는 '명상'이고 후자는 '약물치료'란 말이다. 명상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해독제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근육이 고요함 속에 단련되기 때문이다. 명상은 긴장을 이완시키는 촉매제로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침묵은 혼란스러운 정신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임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침묵하라. 그리고 법을 논하라"고 유혹을 남겼다.

지금 어느 산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들 뜬 마음과 육신을 감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여. 이 절기가 지나면 아마 공허한 마음과 제어되지 않는 육신은 의학의 힘을 빌려 치료받아야 할 무기력한 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쾌락만을 좇다 보면 마치 거미줄이나 끈끈이에 달라 붙어서 움직 달랠 수 없는 파리처럼 되고 말 것이다.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은 휴가는 후회와 나약함만이 남겨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돛을 조절하는 슬기로운을 지니고 있다.

법정스님 뵈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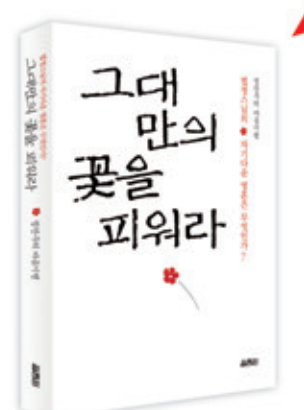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작가는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암자와 절을 순례하며 우리들에게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길벗 삼아 법정스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무소유 성지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현장스님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 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흥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뵈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법정스님의 *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정찬주의 마음기행